

# TDB 경기동향조사 (전국) - 2023년 1월 조사 -

2023년 2월 3일  
 주식회사데이터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악화, 비용부담 높아져

~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생산·출하가 부진, 해외 경제도 불확실 ~

(조사대상 2만 7,362사, 유효회답 1만 1,719사, 회답율 42.8%,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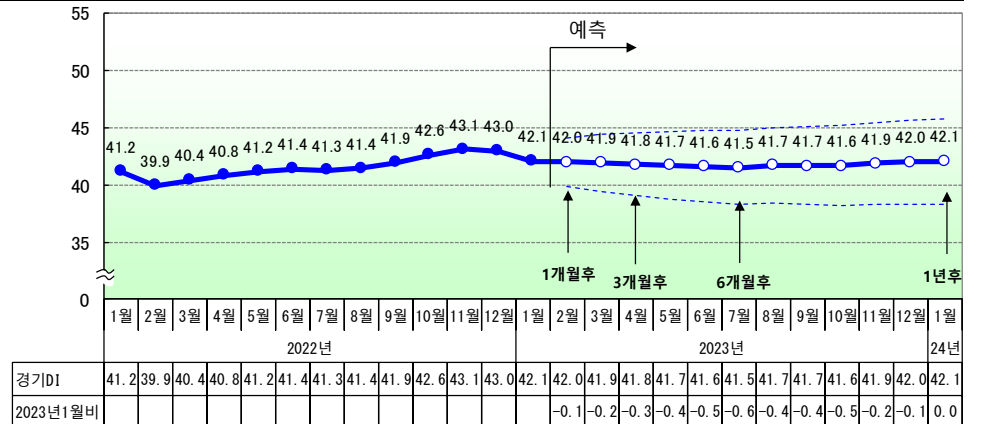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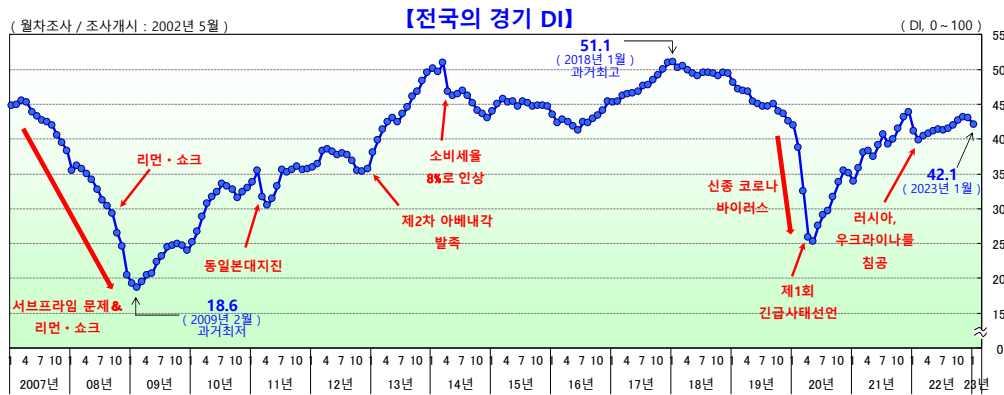
- 2023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9포인트 감소한 42.1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설비가동률 저하로 생산·출하가 감소하여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경제 정세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체로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중 7개 업계, 51개 업종 중 37개 업종으로 악화되었다. 여전히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전기세 등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료칸·호텔」의 침체 등 지금까지 견인해온 전국 여행 지원의 효과도 다소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되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이 안정을 보이는 가운데 설비가동률 DI 및 생산·출하량DI가 전 지역에서 감소하는 등 41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악화되었다. 강설로 인한 비용부담 등도 체감경기를 낮아지게 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월과 동수준이었던 반면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은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 < 2023년 1월의 동향 : 악화가 계속돼 >

2023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42.1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1월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이 서서히 안정을 보이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이나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증가 등이 악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국 여행 지원 효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관광산업은 숙박·음식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대규모 제조업의 생산 조정이나 충분하지 못한 가격전가, 월 후반의 한파 등도 악재가 되었다. 한편 투자용·자산용 부동산은 판매·임대 양쪽 모두 활발했던 것 외에도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 IT투자수요도 계속해서 호조였다. 국내경기는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설비가동을 저하로 생산·출하가 감소하여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으로 추이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회와 함께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경기를 밑에서 지탱해주는 한편, 미·중·유럽 등의 해외경제나 우크라이나 정세, 앞으로의 금리동향 등의 영향을 계속 받으며 추이할 것이다. 탈탄소나 공급망 재검토 등은 설비투자에 플러스 요인이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된 엔저(円低)상황에서의 조정 등은 경기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계속된 전국 여행 지원이나 인바운드 소비 확대, 임금인상 움직임 및 DX수요 확대 등도 플러스 요인이다. 한편으로 코로나 관련 용자의 본격적인 변제로 인한 부담의 증가, 신종 코로나 감염 동향, 생활비 상승, 인재 부족 심각화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향후는 해외 경제 정세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체적으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